

목포권

조합장 선거 '치고 받기' 과열

무안군내 단위농협·산림조합, 고소·고발에 지역갈등 심화

무안군내 단위농협과 산림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3월 24일 치러지는 일로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들 간에 고소·고발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에 이질감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K모씨가 상대측의 고소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현재 사업관련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돼 있어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 조합장 선거에 적지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로농협 조합원인 K모씨는 "2006년 조합장 선거 당시에도 예비후보들이 상호 비방과 흠집내기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이번 선거도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될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모르겠다"며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를 주창하는 조합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전투구식으로 전개된다면, 조합원들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는 2월12일 실시되는 무안군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는 지역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따라 유력한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해재출신 C씨와 일로출신 S씨가 자신들이 유리한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표밭다지기에서 나서 동(철로번)·서(해안가)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9월 실시되는 운남농협 조합장 선거 또한 현 조합장 외에 2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간 반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선거를 앞둔 조합들이 입원선거를 하면서 편 가르기 양상을 보이는 등 과열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농협중앙회나 선거관리기관이 공명선거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안=대서기자 dss@

신안 태평염전에 '악기공원' 들어선다

소금박물관 부근 500㎡에 5월까지 건립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이자 '근대문화유산'(제360호)으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에 '악기공원'이 건립된다. 태평염전·취삼층제는 태평염전 소금박물관 부근 500㎡에 폐품을 활용한 재활용 악기를 설치해 공연하고 재활용 악기 체험도 할 수 있는 악기공원을 오는 5월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악기공원 건립을 위해 호주에 세계적인 생태주의 예술가 스티브 랭턴(Steve Langton)이 한국의 대표적 생태주의 뮤지 퍼포먼스 그룹이자 공예 문화예술기업인 ㈜노리단과 함께 29일 태평염전을 방문한다.

이들은 일주일간 이곳에 머물며 어떤 재활용 악기를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조만간 설치팀을 보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태평염전 측은 전했다. 태평염전 관계자는 "신안의 명품 소금을 널리 알리고 섬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악기공원을 만드는 게 됐다"며 "주민과 관광객의 반응을 봐가며 악기공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62만㎡의 광활한 규모를 자랑하는 태평염전은 2007년 12월1일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되고 '보물섬'으로 잘 알려진 신안군 증도면에 있다. 특

히 태평염전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360호로, 증도 석조 소금창고(현재 소금박물관)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361호로 지정됐다. 악기공원 건립을 주도할 스티브 랭턴은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인도에서 보냈으며 그의 음악 작업은 인도의 음악과 건축, 거리 공연, 무덤, 순례지, 그리고 종교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지난 15년간 많은 사람이 함께 음악을 만들고 공연할 수 있는 악기 제작과 이동 가능한 소리 놀이터(Sound Playground)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섬 노인들 '배움의 기쁨' 흠뻑

신안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큰 호응

"눈도 침침하고 귀도 멀어 공부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 있습니다" 신안군이 운영하는 '문해(文解)교실'이 섬지역 백발 노인들의 배움 열기를 가둬다. 신안군은 지난 15일부터 지도, 임자, 압해면 등 9개 읍·면 10개소에서 '제 1기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열고 있다. <사진> 이번 문해교실에서는 147명(노인 139, 이주여성 8)의 비문해자들이 주 2회 문해교육사들로부터 한글수업을 받고 있다.

또한 종이접기와 풍선아트 봉사단들이 격일로 특별한활동을 지도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7일까지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개설, 36명의 문해교육 전문봉사단 '섬마을 선생님'을 배출했다. '문해교육'이란 글 모르는 성인들에게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며, 기초 수준의 산수 능력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다. 이번 문해교육은 신안군 여성자원봉사자회(회장 김재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년 지원사



업비와 군비로 운영하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으로 농한기인 3월 말까지 운영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백발의 노인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처럼 적극 수업에 임하는 흐뭇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며 "문해교육 봉사자들 역시 수업이 거듭될 수록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어 재미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목포 국내 최대 해양음악분수 4월 착공

134억원 들어 연말까지 완공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오는 4월 분수 설치공사에 들어간다. <조감도> 목포시는 "평화광장 앞바다에 수반 길이 150m, 분사 높이 35m 규모의 해양 음악분수 설치사업을 연말 완공예정"으로 오는 4월 시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애초 이달 초 시작해 오는 8월 '2009년 목포 해양문화축제' 때 시험가동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으로 다소 늦어졌다. 세부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근 ㈜HSMN 조이위터를 사업자로 확정하고 해양음악분수 실시설계에 들어간 시는 다음 달에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분수 설치사업 관련 중간보고회를 두차례 정도 더 갖고 오는 3월에 전남도의 '계약 심의'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134억원 가운데 50%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되며 현재 44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회원과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생태계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명준기자 lyc@

서남해 뱃길 설 귀성객 크게 줄어

폭설·기상악화로 작년보다 37% 감소

폭설과 기상악화로 섬 지역을 찾은 귀성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수송 선박인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여객선을 이용, 서남해 도서지역을 찾은 귀성객은 지난해 설보다 3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뱃길 이용객은 7만2천5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2만5천

98명) 보다 37% 감소했다. 이는 강풍주의보 등 해상 기상악화와 폭설에 따른 기상불량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이용객은 목포지역이 22개 항로에 3만1천955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완도지역 12개 항로 3만 5천347명, 군산지역 5개 항로 1천604명으로 28% 감소했다. 도선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48% 감소한 2천70명으로 집계됐다. /목포=이상훈기자 lsh@

신안 조선타운 3월께 일반산단 지정

예정보다 2~3개월 빨라...착공은 늦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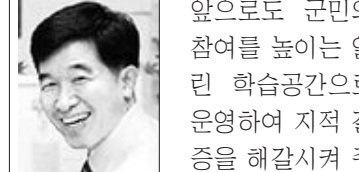
신안 조선타운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관례법을 개정으로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빠른 오는 3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앞서 신안 조선타운 참여 포기사를 밝힌 업체들이 아직 태도를 바꿀 기미를 안 보여 본격적인 조선타운 구축은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 조선타운은 신안군 압해면 일대 1천457만㎡ 부지에 2조7천억원의 투입해 중형조

선 특화단지로 조성되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선타운 조성은 책임진 특수목적법인 서남조선산업개발(주) 등은 2월 초까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지정권자인 전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등을 거쳐 3월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신안 조선타운은 조선산업지구 917만㎡와 주거중심지구 531만㎡ 등 총 1천457만㎡로 개발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진도학당, 공병호씨 초청강연

진도군이 2009년 진도학당 첫번째 행사로 29일 공병호(공병호 경영연구소·사진)씨를 초청, 군청 대회의실에서 '명품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이라는 주제강연을 마련한다. 공 소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명품인생을 다듬고 만드는 방법 등을 역설, 군민들에게 지남살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살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 소장은 고려대학교 졸업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실 실장을 거쳐 (주)인타운 대표이사, 교보생명주식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진도군 행정지원과 혁신교육담당실, 군민들에게 지남살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살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앞으로도 군민의 참여를 높이는 열린 학습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적 갈등을 해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이 2005년 2월 처음 실시해 현재 49회를 맞은 진도학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를 초청 건강, 농·어업, 자기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강좌를 개최, 2만여명의 군민이 참여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ark@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2810-8103
건물
▶이동식 주택 55㎡분 미합계 100여채
▶139㎡분 빌딩 2010㎡
▶139㎡분 빌딩 2010㎡
▶22㎡의 토지 1필지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추천 지구
▶정성 배합 30㎡분 주택 10채
▶토지 1필지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80-2834
추천 물건
▶정성 배합 30㎡분 주택 10채
▶토지 1필지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명성공인중개사
016-611-3424
011-625-0510
수원 지구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대인동삼일부동산
0523-8114, 020-810-802-852
모텔 특목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